



# '바이올린 여제'

5년만에 대한 공연...3월 12일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포시즌  
36년간 호흡 맞춰온 피아니스트 램버트 오키스 협연  
'정점의 연주력' 칭송...음악계 노벨상 '풀라상'·그라미상 등 수상

## 안네 소피 무터의 우아한 음색에 빠지다



램버트 오키스

'안네 소피 무터'는 클래식 애호가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일 것 같다. 상징적인 노란색 시그니처 레이블 커버로 알려진 도이치 그라모폰 앨범 등에서 데뷔 초기부터 수려한 외모로 음악계 이목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피 무터의 진가는 화려한 외양이 아니라 섬세한 테크닉, 드라마틱한 감정 표현 등에 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OST부터 정통 클래식 팬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넘나들며 세계 클래식 팬들의 귀를 매료시켰다. '바이올린의 여제'는 그의 음악적 위상을 보여주는 수식어다.

안네 소피 무터가 데뷔 48주년을 맞아 5년 만에 한국에서 공연을 펼친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운영문·전당)이 기획공연 포시즌으로 마련한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을 통해서다. 3월 12일 오후 7시 30분 전당 대극장.

이순(耳順)이 넘은 소피 무터는 음악계의 노벨 상으로 불리는 '풀라상'을 2019년 수상했으며 지멘스상, 독일음악상, 일본 로열 임페리얼상 등 클래식계에서 권위 있는 상을 석권했다. 영화의 아카데미 상에 비견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그라미상'을 4회 수상하기도 했다.

유년 시절에는 1976년 카라얀 지휘의 베를린 필

과 협연한 루체른 페스티벌을 통해 화려하게 데뷔했으며, 이후에도 필하모니와 함께 공연하며 평단에서 '정점의 연주력'이라는 칭송을 받아 왔다.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소나타 18번', 클라라 '슈만 로망스' 등을 들려준다. 청년기 슈베르트의 원대한 꿈을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방랑자의 이미지로 표현한 '환타지 C장조'도 레퍼토리에 있다.

과감한 연주 속에서도 감정의 절제, 심오함 등이 돋보이는 레스피기의 '바이올린 소나타'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외신과 평단으로부터 그동안 '몽환적인 느낌과 깊은 선율로 이탈리아의 열정, 지중해의 따스함이 깃들여 있는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아온

곡이다.

소피 무터와 36년간 호흡을 맞춰온 피아니스트 램버트 오키스도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2019년 '안네 소피 무터' 내한 리사이틀에서도 협연한 바 있다. 필라델피아 템플대의 에스터 보이어 음대에서 피아노 교수 등을 맡고 있다.

포시즌 조근휘 담당자는 "무대에 있는 그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바쳐 음악으로 소통해 왔다"는 그녀의 말처럼,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소피 무터의 공연은 압도적인 전율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광주 공연이 바이올린 여제의 음악을 가까이

서 듣고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공연 포시즌(For season)은 국내·외에서 최고의 예술성으로 인정받는 공연을 엄선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GAC 재개관 시리즈 '정 트리오 콘서트'와 미디어 아트 뮤지컬 '파랑새' 등을 선보여 왔다.

A석 11만 원, C석 5만 원 등. 전당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날것의 생명성, 날것의 유연함 '정원사의 진술'

김유정·손몽주·양정욱 작가  
25일까지 담빛예술창고

현대 사회는 규격화, 규정화로 정이될 수 있다. 시스템에 맞게 모든 것이 재단이 되고 부품화 된다. 날것의 생명성, 날것의 유연함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러나 생명성은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발현된다. 마치 잡초의 강인함이 버려진 땅에서 연마되는 것처럼.

담빛예술창고에서 열리고 있는 '정원사의 진술' 전에서는 식물성, 연속성 등 고유한 특질을 사유할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김유정, 손몽주, 양정욱 세 작가의 작품을 만난다.

이명칭 주임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2021년 발행된 마크 헤이머의 수필 '두더지 잡기'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됐다. 이 주임은 "우리의 일상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다듬기'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가졌다"며 "자꾸만 멈추려하고 나아가 인위적인 것을 덧씌우려는 행위가 우리의 삶을 오히려 퇴보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원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재단하고 짜여진 틀에 구속하려 하는 경향성을 지닌다"며 "물론 그것이 적절한 배치와 구도에 따른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생명성을 느끼게 하기에는 역부



양정욱 작 '대화의 풍경'

족"이라고 덧붙였다.

전시장에서는 세 작가의 각기 다른 작품과 마주하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코드는 '생명함수'다. 김유정의 '질경이 군락지'는 질경이 특유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비록 재질은 스테인리스이지만 들판에서 뿌리를 내린 질경이의 강인함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김 작가는 단국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다. 금호미술관 등 개인전과 고양아람누리미술관 등 다수 기

획전에 참여했다.

손몽주 작가의 '담빛유목'은 오랜 시간 전물에 표백돼 하얗게 닳은 유목이 밴드와 만나 새롭게 공간을 창출한 작품이다. 반복된 선형은 마치 어딘가를 향해 날아오르려는 듯한 이미지를 환기하며 묘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손 작가는 '고무밴드 시리즈'로 작가활동을 시작했으며 광주비엔날레 작품 '관광타령'을 선보였다. 부유와 움직임을 모티브로 연결과 반복 등의 은유적 표현을 시도해왔다.

양정욱 작가의 '대화의 풍경'은 다양한 식물과 사물과 조명 등이 어우러진 어느 공간을 조형화한 작품이다. 아마도 아파트의 거실일 것 같은데, 각각의 오브제들은 하나로 분리돼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된 상태로 이색적인 아우라를 발한다. 아마도 작가가 상정하는 대화의 모습일 것 같다.

가천대 조소과를 졸업한 양 작가는 백남준아트센터,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기관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2017년 프랑스 케르케네 미술관 입주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손몽주 작 '담빛유목'



김유정 작 '질경이 군락지'

## 우리 이야기, 읽는 이에게 감동 줄 수 있기를...

무등수필문학회, 동인지 '맨발의 자유'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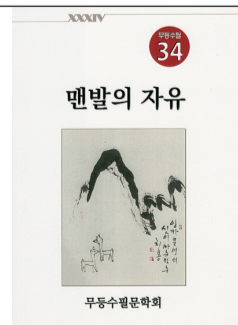
"서른넷 나이는 자식들도 쪽쪽 낳고 한참 번성기에 접어들 나이인데도 코로나와 병치레, 광주와 먼 식구들 때문에 몇 번 만나지도 못하고 또 한 해를 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하다가도 '여백의 시간을 가졌다'하고 마음을 추슬러 봅니다."

최근 '무등수필' 동인지(통권 34권) 발간에 대한 무등수필문학회 박석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회

고다.

이번 동인지 제목은 '맨발의 자유'. 회원들은 매년 동인지를 발간하는데, 올해로 34회째를 맞았다. 회원들은 광주 외에도 전남 등 각지에 거주하는 터라 얼굴 마주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꾸준히 동인지를 발간해오고 있다.

동인지에는 모두 9명 수필가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박석구 '고주'를 비롯해 김향남 '너비에게 묻고



무등수필문학회

싶은 것', 염정열 '그러저 력 살아보기', 김선식 '한 걸음 물러서서', 송미심 '그대있음에', 이임순 '꿈에서라도 고향에', 정태현 '노을 목시', 안민희 '마중', 임명자 '목련꽃 그늘' 등을 만날 수 있다.

회원들은 이번 동인지 발간에 대해 "우리의 이야기가 잠시 읽는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글들을 내보냅니다"라며 "글을 쓴다는 것은 나 자신과, 내 이웃과 나누는 특별한 대화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첼로로 만나는 베토벤·슈만·피아졸라

안미영 '첼로 독주회' 3월 8일 금호아트홀

클래식 음악에서 바탕음을 잡아주는 첼로에는 독보적인 매력에 있다. 중후하고 고풍스러운 음색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독일 로스톡 국립음대에서 학·석사를 마친 첼리스트 안미영이 '첼로 독주회'를 연다. 3월 8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

공연의 부제는 '클래식 큐레이터가 된 첼리스트'로, 자신만의 해석을 곁들이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빈고전파의 대표주자 베토벤부터 19세기 초 활동한 슈만 등 독일 작곡가들의 작품, '리베르탱고' 등으로 알려진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곡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A장조 op.69'도 들을 수 있다. 빠르고 생기 있는 현악기들의 속주가 이목을 끄는 작품이다.

이어지는 '환상 소곡집 Op.73'은 알렉산더 슈만의 곡으로, 그가 좋아하던 작가 E.T.A 호프만의 단편 모음집 '칼로의 수법에 따른 환상 소품집'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8개의 소품곡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망각', '르 그랑 탱고'도 관객들을 만난다.

첼리스트 안미영은 이탈리아 'Valtidone' 국제콩쿨에서 입상했으며 북독일 로스톡 필하모니 객원단원을 역임했다. 광주음악제와 대전국제음악제, 세종음악제 등에서 연주했으며 현재 조선대, 대전예고 등에 출강하고 있다. 광주스트링과 르옥렛(GSQ), 울렛첼로앙상블 등에서 활동 중이다.

조선대 음악교육과 등에 출강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보라가 협연자로 나선다. 김 씨는 한양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독일 koeln 국립음대



공연 리허설 중인 안미영 첼리스트. <안미영 제공>

디플롬을 수료했다.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친 뒤 독일 Angermuede, Schwedt 시립음악 예술학교 등에서 강의 중이다.

안미영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연주자가 악기만 다루지 않고 관객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기야 클래식 시장이 도태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이유에서 토크콘서트 방식의 공연을 마련했으니 부담 없이 찾아와 소통하고 음악을 즐기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전남문화재단, 국내·외 아트페어 참여작가 모집

전남 신진작가들의 미술작품 유통 및 판로확대를 위한 아트페어.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오는 21일 까지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가할 작가를 모집한다.

지난 1월 진행했던 아트페어 참가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 화랑 네 곳을 작가들과 매칭,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트디오션(여수), 갤러리코어(강진), 예술공간 집(광주), 갤러리호차(목포) 등 갤러리가 참가할 예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거주 및 출생 작가여야 지원할 수 있다. 미술관련 학과를 졸업하

거나 전시회 10회 이상 참가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아트쇼를 비롯해 아트 쇼핑 파리(프랑스), 여포터블 아트페어(상가품), 인천 아시아아트페어 등과 연계해 아트페어를 진행한 바 있다.

재단 창작지원팀 한승진 대리는 "지역 작가들을 위해 부스 임대료와 작품 운송비 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지역 작가들의 미술작품 유통 등에 새로운 활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도사이버갤러리 공모페이지에서 접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